

## Key Factors in the College Experience from a Student Perspective: An Analysis of the Pre-Engagement, Active Engagement, and Post-Engagement Phases

Jong Man Lee\*

\*Professor,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Dongyang Mirae University, Seoul, Korea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success factors at each stage of the college experience.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college experience has been divided into three stages: pre-engagement, active engagement and post-engagement. A survey was conducted among college students and 119 responses were used in the empirical analysis. The findings indicate that a growth mindset and social connectedness are critical during the pre-engagement phase. During the active engagement phase, thriving in college emerges as a central factor. Notably, thriving in college significantly predicts major satisfaction in the post-engagement phase. Understanding the temporal relationships among these factors offers valuable insights into designing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s. The purpose of such programs is to enhanc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chosen major by improving the overall college experience.

▶ **Key words:** College Experience, Growth Mindset, Social Connectedness, Thriving in College, Major Satisfaction

### [요 약]

본 연구는 대학 생활 경험을 참여 전, 참여, 참여 후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의 성공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19부의 응답지를 최종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참여 전 단계에서는 성장 마인드셋과 사회적 연결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참여 단계에서는 대학 생활 번영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생활 번영감은 참여 후 단계의 전공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수로 밝혀졌다. 이러한 시간 흐름에 따른 요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학생 경험과 전공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주제어:** 대학 생활 경험, 성장 마인드셋, 사회적 연결감, 대학 생활 번영감, 전공 만족도

• First Author: Jong Man Lee, Corresponding Author: Jong Man Lee  
\*Jong Man Lee (jmlee@dongyang.ac.kr),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Dongyang Mirae University  
• Received: 2025. 08. 04, Revised: 2025. 08. 21, Accepted: 2025. 08. 28.

## I. Introduction

대학 생활은 개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 시기는 단순한 학업적 성취를 넘어 개인적, 사회적, 전인적 성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경험은 대학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과 직업적 성공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2025년 4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 사티아 나델라는 전체 코드의 30%가 인공지능(AI)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고 발표했다[1]. 전례 없는 기술 혁신과 그에 따른 노동 시장의 최근 변화는 대학생들의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동 시장의 불확실성은 전공 만족도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실시한 대졸 직장인 대상 전공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8%에 달했다[2]. 이와 같은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단순히 개인적인 후회에 그치지 않고, 학업적 동기 저하와 낮은 학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졸업 후의 직업적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학이 급변하는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대학 생활 경험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전공 선택과 그에 따른 전공 만족도는 대학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대학이 학생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대학 생활 관련 기존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선행 연구자들은 대부분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여 왔다. 그 결과, 많은 기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 등이 대학 생활 적응 및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였다[3-4]. 하지만 대학 생활의 유효성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하 CRM) 개념을 도입하여 대학 생활의 유효성을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초기 CRM은 단순히 고객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5]. 이러한 진화의 핵심은 고객의 여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관리하는 고객 생애 주기 관리 모델이다.

본 연구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인 고객 관점에서 접근하여 성과를 내고 있는 CRM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자인 대학이나 교수자 관점에서 대학 생활 적응을 통한 학업 성취도 향상을 분석해온 기존 연구만큼, CRM 개념을 학생에 적용하여 수요자인 대학생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전공 만족도에 초점을 둔 연구 시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CRM에서의 고객 생애주기 관리 모델을 대학 교육에 적용하여 학생 생애주기 관리 모델의 기초 자료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대학생을 수요자로 바라보는 단편적인 관점을 넘어, 대학 생활의 경험 과정을 참여한 단계(pre-engagement phase), 참여 단계(active engagement phase), 참여 후 단계(post-engagement phase)의 3단계로 구분한 후, 각 단계에서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기존 연구가 놓쳤던 시간적 상호작용과 단계별 전환의 중요성을 조명함으로써, 대학이 학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상술하면, 본 연구는 대학 생활 경험의 각 단계에서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대학생들이 더 나은 대학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요인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학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II. Theoretical Background

### 1. An overview of college experience

대학 생활 경험은 학문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개인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대학생들이 성격, 가치관, 직업 목표를 형성하는 전환점이다. 학업 성공과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직업 준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시기의 주요 경험은 학문적 성취, 사회적 상호작용, 개인적 발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활력과 학습을 동시에 느끼는 상태인 대학 생활 번영감(thriving in college)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학문적 경험은 대학생들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대학생들은 단순히 전공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 해결 역량과 비판적 사고 역량도 함양시킨다. 특히,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학습에 대한 열린 태도인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을 함양함으로써 학업적 도전과 실패를 학습과 발전의 기회로 인식하며, 이는 지속적인 노력과 회복 탄력성을 촉진한다[6]. 교수와의 상호작용은 학문적 목표 설정과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전공 만족도로 이어져 대학생들의 학업 지속 의지와 직업적 목표 설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제 중심 학습이나 캡스톤 디자인 경험은 실제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하여 졸업 후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된다.

둘째, 대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을 제공한다[9]. 동료와의 관계는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대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형성하는 인간관계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적 연결감(social connectedness)은 대학 생활 적응 및 심리적 웰빙(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강조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협력적 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리더십과 사회적 자본을 개발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 체계는 대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다.

셋째, 대학 생활은 개인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생들은 자아 정체성 확립과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개인적 과제를 다룬다[3]. 이러한 경험은 자기효능감과 자아 존중감을 높여 대학 생활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4].

## 2. Phases and key factors of college experience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경험하는 과정과 그 영향은 각기 다른 시점에 나타난다. 따라서 대학생의 경험을 총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교수자 관점이 아닌 대학생 관점에서 그들의 대학 생활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1은 선행 연구의 주요한 결과를 대학 생활 경험 관점에서 참여 전, 참여, 참여 후의 3단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첫째, 대학 생활의 참여 전 단계에서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성장 마인드셋과 사회적 연결감이다. 성장 마인드셋은 개인의 지능과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과 경험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4]. Pismeny(2016)는 “성장 마인드셋을 키우는 것이 대학생들을 생존에서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인식하고 노력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태도를 함양할 때 번영감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7]. Jiang 외(2024)의 연구 또한 성장 마인드셋이 대학생의 번영감에 정(+)적인 조절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8].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성장 마인드셋이 대학생의 심리적 번영을 증진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연결감 역시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대학생의 사회적 연결감은 소속 집단에 대한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을 의미하며, 얼마나 친밀한지, 얼마나 지지적인 우정을 누리는지 등을 포함한다. Yates(2017)는 박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연결감이 번영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고[9], Keetch(2021)의 연구에서는 교수와의 학업 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대학생의 번영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10]. 또한 Jiang 외(2024)는 심리적 공동체 의식(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이 번영감(student thriving)을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8]. 이와 같은 연구들은 대학 내 학습자 커뮤니티와 소속감의 강화를 통해 대학생들의 심리적 번영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대학 생활의 참여 단계에서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대학 생활 번영감이다. 대학 생활 번영감은 대학생이 활력(vitality)과 학습(learning)을 동시에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로, 두 요소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대학생의 성장과 내적 동기를 강화한다. 여기서 활력은 대학생이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는 상태를 의미하

Table 1. Phases and key factors of college experience

Researcher(Year)	Pre-engagement phase		Active engagement phase		Post-engagement phase	
	Growth mindset	Social connectedness	Interaction	Thriving in college	Major Satisfaction	Academic performance
Jo(2019)[4]						○
Pismeny(2016)[7]	○			○		
Jiang 외(2024)[8]	○	○		○		
Yates(2017)[9]		○		○		
Keetch(2021)[10]			○	○		
Nelson(2015)[11]				○	○	

며, 학습은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적용을 통해 역량과 자신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 생활 번영감은 단일 요소가 아닌 대학생의 전반적 심리적 성장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대학 생활 번영감은 대학생의 학업 지속성과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된다.

셋째, 대학 생활의 참여 후 단계의 주요 변수인 전공 만족도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Nelson(201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 생활 번영감이 대학 생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11]. 그러나 현재까지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번영감 연구는 직장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 3. Research model

기존의 대학 생활 관련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의 학업 적응과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특히 공급자인 대학이나 교수자의 관점에서 학업 성취도, 심리적 복지, 그리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형성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대학생의 경험을 결과 중심으로 간주함으로써, 대학생 관점에서 대학 생활 전반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공급자 중심의 접근을 보완하고, 수요자인 학생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관점에서 연구를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학 생활 경험을 참여 전 단계, 참여 단

계, 그리고 참여 후 단계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인 Fig. 1은 이를 기준으로 분석된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대학생 관점의 대학 생활 경험 단계별 주요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부연하면, 참여 전 단계에서는 성장 마인드셋과 사회적 연결감 요인을 선정하였고, 참여 단계에서는 대학 생활 번영감 요인을 선정하였다. 참여 전 단계 및 참여 단계의 요인들은 독립 변수들이며, 참여 후 단계의 전공 만족도는 종속변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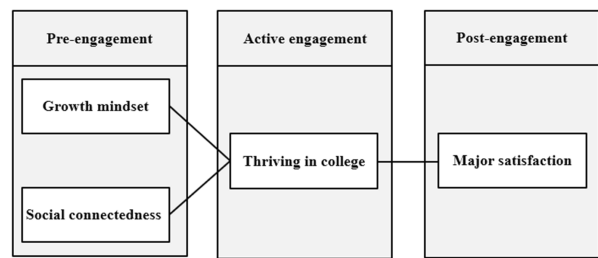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III. Research Method

### 1. Survey instrument development

Table 2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요인 4문항(성별, 학년, 지역, 종교)을 제외한 설문문항이다. 첫째, 성장마인드셋은

Table 2. Questionnaire items of construct

Construct	Questionnaire items	Reference
Growth mindset	1. I believe that everyone can improve their abilities if they try. 2. I believe that even people with low ability can change their ability if they try. 3. I can always change my ability level if I try hard enough. 4. I think that learning and studying new things will improve my ability a lot.	Dweck(2006)[6]
Social connectedness	1. I feel that I have friends at university who understand me. 2. I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my professors. 3. I am expanding my social circle through study groups, clubs, etc. 4. I feel a sense of belonging as a member of the university community.	Lee, and Robbins(1995)[12]
Thriving in college	1. I feel alive and vital in college. 2. I have energy and spirit in college. 3. I feel energetic in college. 4. I feel alert and awake in college. 5. I am looking forward to each new day in college. 6. I find myself learning often in college. 7. I continue to learn more as time goes by in college. 8. I see myself continually improving in college. 9. I am learning in college. 10. I am developing a lot as a person in college.	Porath 외(2011)[13]
Major satisfaction	1. I am satisfied with my current major. 2. I'm satisfied with both the curriculum and administration of my major. 3. I am satisfied with the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in my major. 4. I think my current major will be useful for my career after graduation.	Kim, and Ha(2000)[14]

Dweck(2006)이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6]. 성장마인드셋에 대한 4개의 설문문항을 리커트(Likert)식 5단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에 '전혀 그렇지 않다'면 1점, '매우 그렇다'면 5점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사회적 연결감 척도는 Lee와 Robbins(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12].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였다. 셋째, Porath 외(2011)는 번영감(thriving at work) 척도를 개발하였다[13].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설문 문구에서 "직장에서(at work)"를 본 연구에 맞게 "대학에서"로 변경하고, 그들이 제시한 10개의 설문문항을 그대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전공 만족도 척도는 김계현과 하혜숙(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학과인식 만족, 전공교과만족, 교수-학생 관계 만족, 전공학문관심과 만족 요인을 본 연구에 맞게 4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14].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 2. Survey instrument validation

본 연구에서는 국내 1명의 연구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설문 문항의 내용 적합성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1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한 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내용이 모호하거나 답하기 어려운 내용을 확인한 후,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 3. Data collection procedure

자료 수집을 위해 본 연구는 국내 D 대학교에서 다수개의 오프라인 수업을 편의표집하였다. 해당 오프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에게 2025년 4월 7일부터 4일 동안 설문조사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설문을 4월 20일까지 진행하였다. 수집된 126부의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7부를 제외하고, 총 11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빈도분석을 통하여 설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Table 3에서 제시한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설문 응답자 중 성별은 남자 70명(58.8%), 여자 49명(41.2%)로 비율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54명(45.4%), 2학년이 65명(54.6%)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이 75명(63.0%), 경기

도가 29명(24.4%), 인천이 15명(12.6%)로 설문 응답자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92명(77.3%)로 파악되었다.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

		N	%
Gender	Male	70	58.8
	Female	49	41.2
College year	Freshman	54	45.4
	Sophomore	65	54.6
Area	Seoul	75	63.0
	Gyeonggi-do	29	24.4
	Incheon	15	12.6
Religion	Religious	27	22.7
	Non-religious	92	77.3
Total		119	100.0

### 5. Data analysis methods

설문 응답 자료는 SPSS Statistics 24 통계 프로그램(이하 SPSS)로 처리하였다. 먼저, SPSS에서 주성분 모형과 배리맥스 회전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항목 간 상관계수 및 요인적재량에서 0.5보다 작은 값이 발견된 1개의 사회적 연결감 요인(SC2)와 2개의 대학 생활 번영감 요인(TC9, TC10)을 제외한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목 간 상관계수와 요인적재량이 모두 0.5이상으로 나타났다.

이후,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Cronbach's  $\alpha$  값이 0.7이상으로 비교적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Table 5. Reliability of scales

Phase	Variables	Items	Cronbach's $\alpha$
Pre-engagement	Growth mindset	4	0.870
	Social connectedness	3	0.795
Active engagement	Thriving in college	8	0.969
Post-engagement	Major satisfaction	4	0.912

## IV. Research Findings

### 1.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able 6에서 제시한 대학 생활의 참여 전, 참여 및 참여 후 단계의 요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 생활의 참여 전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성장 마인드셋 평균은 4.279, 사회적 연결감 평균

Table 4.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Construct	Item	GM	SC	TC	MS
Growth mindset (GM)	GM1	0.882	0.119	0.131	0.064
	GM2	0.863	0.030	0.170	-0.016
	GM3	0.774	0.195	-0.013	0.275
	GM4	0.751	0.103	0.278	0.182
Social connectedness (SC)	SC1	0.133	0.669	0.295	0.261
	SC3	0.144	0.798	0.212	0.137
	SC4	0.147	0.766	0.437	0.089
Thriving in college (TC)	TC1	0.018	0.280	0.890	0.152
	TC2	0.068	0.235	0.887	0.187
	TC3	0.152	0.288	0.872	0.216
	TC4	0.126	0.297	0.864	0.215
	TC5	0.268	0.257	0.752	0.227
	TC6	0.192	0.129	0.796	0.393
	TC7	0.235	0.069	0.793	0.422
	TC8	0.202	0.141	0.705	0.432
Major satisfaction (MS)	MS1	0.107	0.021	0.372	0.822
	MS2	0.131	0.091	0.350	0.857
	MS3	0.127	0.181	0.284	0.741
	MS4	0.129	0.305	0.153	0.825

Table 7.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or major satisfaction

Phase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beta$	<i>t</i>	Sig.	VIF	$\beta$	<i>t</i>	Sig.	VIF
Pre-engagement	Growth mindset	0.199	2.301	0.023	1.150	0.094	1.204	0.231	1.213
	Social connectedness	0.384	4.432	0.000	1.150	0.077	0.835	0.405	1.690
Active engagement	Thriving in college					0.550	5.855	0.000	1.738
		$R^2=0.243, \Delta R^2=0.243$				$R^2=0.417, \Delta R^2=0.174$			

은 3.574로 나타났다. 참여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대학 생활 번영감 평균은 3.529로 나타났다. 참여 후 단계의 요인인 전공 만족도 평균은 3.767로 나타났다.

Table 6.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Phase	Variables	Mean	SD
Pre-engagement	Growth mindset	4.279	0.672
	Social connectedness	3.574	0.895
Active engagement	Thriving in college	3.529	0.976
Post-engagement	Major satisfaction	3.767	0.847

## 2.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본 연구는 대학 생활의 참여 전 단계와 참여 단계에서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먼저, 참여 전 단계의 주요 요인들로 구성된 1단계 모형(Model 1)을 설정한 후, 여기에 참여 단계의 주요 요인을 추가한 2단계 모형(Model 2)를 구축하여 두 모형간의 설명력을 비교하였다.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41.7%로 나타났으며, 2단계 모형에서는 설명력이 17.4%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공 만족도를 보다 정교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대학 생활의 참여 전 단계와 참여 단계의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참여 전 단계의 주요 요인들로 구성된 1단계 모형 분석 결과, 성장 마인드셋( $\beta = 0.199, p < .05$ )과 사회적 연결감( $\beta = 0.384, p < .001$ ) 모두 전공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참여 단계의 요인을 추가한 2단계 모형에서는 대학 생활 번영감( $\beta = 0.550, p < .001$ )이 전공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V. Conclusions

본 연구는 학생 관점에서 대학 생활 경험 과정을 참여 전, 참여, 참여 후의 세 단계로 구분한 후,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본 연구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참여 전 단계와 참여 단계로 구분하여 명확히 보여 준다. 전체 모형의 설명력은 41.7%이며, 2단계 모형에서 설명력이 17.4%p 증가한 것은 전공 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 대학 생활의 다단계적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학 생활의 경험 과정을 참여 전 단계, 참여 단계, 참여 후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는 접근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참여 전 단계의 요인분석 결과, 성장 마인드셋과 사회적 연결감이 전공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학업적 도전과 실패를 성장 기회로 인식하는 태도(성장 마인드셋)와 대학 공동체 내에서 형성하는 소속감 및 집단적 결속력(사회적 연결감)이 대학 생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적 연결감의 영향력이 성장 마인드셋보다 더 크게 나타난 점은 대학 환경에서 관계적 측면이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참여 단계의 요인을 추가한 2단계 모형에서는 대학 생활 번영감이 전공 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 전반에서 긍정적인 감정, 몰입, 의미, 관계, 성취 등을 경험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상태인 대학 생활 번영감이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예측 변수임을 시사한다. 참여 전 단계의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대학 생활 번영감으로 이어지고, 이 번영감이 다시 전공 만족도를 높이는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참여 전 단계, 참여 단계, 그리고 참여 후 단계라는 다단계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 전 단계에서는 성장 마인드셋과 사회적 연결감이, 참여 단계에서는 대학 생활 번영감이 전공 만족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대학 생활 번영감은 전공 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경험하는 전반적인 긍정적 상태가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학이 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성장 마인드셋 함양 프로그램, 사회적 연결망 강화 활동, 그리고 대학생활 번영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지원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실질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119명의 응답을 활용한 표본 크기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는 특정 대학이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나, 전체 대학생 집단에 대한 대표성은 부족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 횡단적 연구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성장 마인드셋, 사회적 연결감, 대학 생활 번영감, 전공 만족도 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 및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모든 변수가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측정되었으므로, 응답 편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후속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즉, 설문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1-2학년이며, 3-4학년이 누락되어 있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학 유형, 학년, 전공 분야를 아우르는 표본을 확보하여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참여 전, 참여, 참여 후라는 단계를 가정하여 위계적 회귀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분석 자료가 횡단적으로 수집된 설문 자료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 생활의 참여 전 단계, 참여 단계, 참여 후 단계에서 각 요인들 간의 인과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정량적 연구와 더불어 심층 인터뷰와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병행하여 대학생들이 각 단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사회적 현상에 대한 보다 풍부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학업 스트레스, 재정적 어려움, 가족 지원 등의 요인들이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성장 마인드셋, 사회적 연결감, 대학 생활 번영감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전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는 실증 연구를 수행한다면,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AI TIMES, <https://www.aitimes.com>
- [2] JOBKOREA, <https://www.jobkorea.co.kr>
- [3] J. Y. Kim, E. J. Kim, and J. Kim, "The Medi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Journal of Thinking Development*, Vol. 14, No.

- 1, pp. 53-73, 2018. DOI : 110.51636/JOTD.2018.03.14.1.53
- [4] Y. J. Jo, "A Study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University's Adaptation by Group of Academic Achievements : Mainly in University freshme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Vol. 31, No. 6, pp. 1708-1723, 2019. DOI : 10.13000/JFMSE.2019.12.31.6.1708
- [5] S. La, and Y. Lee, "A Critical Review of Customer Satisfaction, Customer Loyalty, Relationship Marketing, and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Journal of Korean Marketing Association*, Vol. 30, No. 1, pp. 53-104, 2015. DOI : 10.15830/kmr.2015.30.1.53
- [6] C. S. Dweck,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Random House, 2006.
- [7] J. B. Pismeny, "*Thriving in collegiate life: Can fostering growth mindset move undergraduate students from surviving to thriv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ugust 2016.
- [8] Y. Jiang, H. Liu, Z. Ouyang, M. Xie, and S. Wei,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s mediator and growth mindset as moderator in the impact of institutional integrity and perceived teacher support on student thriving: Evidence from private universities in China," *PLoS ONE*, Vol. 19, No. 12, December, 2024. DOI: 10.1371/journal.pone.0312338
- [9] S. J. Yates, "*Surviving or Thriving? A Study of Engaged Learning, Academic Determination, Social Connectedness, Positive Perspective, and Spirituality of Doctoral Students in a Private Christian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Southeastern University, March 2017.
- [10] C. L. Keetch, "*The Role of Student Satisfaction with Academic Advising in College Student Thriving*,"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ugust 2021.
- [11] D. D. Nelson, "*The role of thriving in student satisfaction with college*," Doctoral Dissertation, Azusa Pacific University, 2015.
- [12] R. M. Lee, and S. B. Robbins, "Measuring belongingness: The social connectedness and social assurance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42, No. 2, pp. 232-241, April 1995. DOI: 10.1037/0022-0167.42.2.232
- [13] C. Porath, G. Spreitzer, C. Gibson, and F. G. Garnett, "Thriving at work: Toward its measurement, construct validation, and theoretical refinemen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 33, No. 2, pp. 250-275, February 2011. DOI: 10.1002/job.756
- [14] K. H. Kim, and H.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1, pp. 7-20, December 2000.

## Authors



Jong Man Lee received his Bachelor of Science degree from Hanyang University. He earned a Master's degree at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and a Ph.D. at Sogang

University. In 2001, Dr. Lee joined the Department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at Dongyang Mirae University in Seoul, South Korea.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same department.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AI in office automati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and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